

# 李-尹 ‘프레임 전쟁’ 시작... “위기 극복 능력” vs “공정과 상식”

이 “대전환 위기 대도약 기회로”  
윤 “대한민국 정상화 시킬 것”  
심상정 ‘노동 선진국’ 안철수 ‘진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의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8일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나, 적폐 수사나 정

쟁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윤석열이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이번 대선의 성격을 규정했다. ‘위기 극복 능력’을 강조하는 키워드는 이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문 곳곳에서 등장한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리더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며 “저 이재명이 하겠다”고 자신이 책임자임을 주장하는 한편, 윤 후보를 겨냥해 “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에게는 없는 행정 경험 등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반문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윤 후보가 제시한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이다. 지난 5일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공정’을 13차례, ‘상식’을 9차례 각각 언급했다. 윤 후보가 지난 6월 대권 도전을 선언할 때부터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두 가지 가치이기도 하다. 그는 연설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또 ‘정권 교체’를 10차례 거론했다. 그는 연설문 제목부터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정하고, “정권 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고 ‘일말’을 강조했다. 정권 교체에 실패할 경우를 우려하며,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국민과 역사 앞에 섰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와 ‘책임’도 각 4차례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키워드로는 ‘선진국·선도 국가’가 꼽힌다.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것

다”며 ‘노동·젠더 선진국, 기후 위기 선도국가’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일제’는 심 후보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는 ‘진실’이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 “저는 계산하지 않는다”며 “진실은 이익이 아니라 그대로의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에 방점이 찍혔다. 안 후보는 “10년 전 그랬던 것처럼 가까이 진실한 정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걸어가겠다”며 “안철수의 정치는 진실하고 진실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운데)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왼쪽)로부터 비단주머니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김종인 “윤 선대위 구성 냉정하게 생각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선대위 구성과 관련,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냉정하게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신동아 장간 90주년 특별기획 - 20대 대선을 말하다’에 진중권 전 동아대 교수와 특별 대담 형태로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전면적인 선대위 재구성을 요구하며 기존 캠프 인력 유지 흐름에 대한 불쾌함을 내비친 것이어서 선대위 원톱 총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의 등판에 앞서 윤 후보와의 힘겨루기가 표출된 양상이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당심에선 상당한 격차로 이겼지만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11%(포인트) 가까이 차이로 졌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고 앞으로 본선을 위해 어떤 형태의 선대위 구성을 해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예측되면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지, 지금은 아무런 그림도

보이지 않고 당이나 후보로부터 그에 관해서 들은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내가 총괄선대위원장 제의도 받은 적이 없고, 윤 후보로부터도 그런 데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으면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선대위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그림을 제시해야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캠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며 “자리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혹시나 대통령 되면 무슨 덕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선별 못 하면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많은 문제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尹 “이번 대선 대장동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

당 최고위 참석 “국민께 좋은 정치로 보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치에 뛰어들지 낙담된 제가 과분하게도 제1야당 후보가 됐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 담겨 있고 거기에 큰 힘을 입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께 좋은 정치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 그런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 “대표, 원내대표, 의원들, 과거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들, 원로 고문들의 고견을 다 들어서 당과 함께 선거 대책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중지를 모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특정 캠프의 선거가 돼 버리면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며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하더라도 대선은 당

이 중심이 되고 당 밖의 분들에게 대한 외연 확장하고 우리의 지지기반과 생각의 넓힐 수 있는 선거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도와준 많은 분, 당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위한 4개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에게 실물 비단주머니를 전달했다. 비단주머니는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준비해 온 ‘선거 비책’을 상징한다. 윤 후보는 비단주머니를 받아들고 “제가 토요일에 대표님과 점심을 하면서 그동안 대선 본선을 준비해오신 걸 보니 이런 것이 몇 박스 되는 것 같다. 고맙다”고 웃어 보였고 이 대표 역시 “집에 가서 보시라”고 웃으며 말했다. /연합뉴스

## “전두환 옹호 발언 윤 후보 절대 용납하지 말아달라”

심상정 5·18민주묘지 참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8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곧바로 광주를 찾았다. 심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광주시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전두환처럼 정치하겠다는 후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이냐”면서 “대통령이라도 그런 언행을 했다면 퇴출당해야 하는데 그런 망발을 일삼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다시 오느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딱딱한 시민의 삶을 좀 바꿔 보라고 민주당 대통령, 과반 국회를 다 만들어줬는데 제대로 해낸 것이 없다”며 “지금 윤석열 후보도 결국 민주당이 키워낸 후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광주시민들께서 심상정으로 결단해 달라”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주를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하고 광주의 민주주의가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규범이 되고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심 후보는 5·18 묘역을 참배하기 전 인근에 있는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을 참배하고 ‘전두환 방면 기념비’를 밟고 지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이날 5·18 기념재단을 방문하고 학동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증감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첩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 2022학년도 전기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구분	일시(기간)	접수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 (인터넷으로만 작성)	2021. 11. 9.(화) 09:00 ~ 11.24.(수)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인력) 후 원서 등록 출력
구비서류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1. 11. 9.(화) 09:00 ~ 11.24.(수)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층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361186 • 출원한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전형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전형 실시	2021. 12. 7.(화) 10:00 ~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한 장소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12. 22.(수) 10:00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신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